

## 新時代의 展望 인테리 問題 ; 不安의 精神과 「인테리」의 將來[中]

박치우(朴致祐)

### 知性の斷念

生知이나 死識냐 하는 이 極限狀況에 直面한 오늘의 인테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一律로 于先 自身の 知力の 無能을 痛感하리라. 自身の 知力이 벌써 이 切迫한 危機를 打開함에는 完全히 無力임을 切實히 느끼리라. 그들은 이리하여 여기서 自身の 特性임과 同時에 자량으로 自他共히 容許되든 그 知性이, 知識이, 頭腦가, 至今에 와서는 그의 몸덩이 하나만도 건지기에 얼마나 無力한 물건인가 를 뼈에 사모치게 느낄 것이다. 아니 이 자랑스럽든 知性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오늘의 破滅을 가지지 아니치 못하였든 것이 아닌가! 이 자랑스러운 知力이 언제든 그들을 爲하여 單한썩각의 甁조차 감당치 못하지 안는가! 그들은 이리케 생각할 때 單純히 知性을

◇ . . . 斷念함에 끄치지 안코, 나아가서 오히려 이에 對한 極度の 憎惡조차 禁치 못하리라. 그러나 이와 같은 知力の 斷念, 知性の 拋棄는 實相은 인테리自體의 自己破滅을 招來하게될것은 自명한 理致니 대저 知性을버리고 무엇이 인테리일것인가! 이리하여 그들은 知性을 버림으로서 다시 完全히 自身을 일케 되는 것이니, 外界를 일흔 그들은 이제다시 自己自身까지 일코야 마는 것이다. 다만 無가 잇을 뿐이다. 우리는 여기서 無의 深淵을 바라보면서 戰慄하는 오늘의 인테리의 참된 姿態를 볼 수 잇는 것이니 「하이텍겔」의 「無」나 「쉬스토프」의 「無의深淵」이란 곧 이를 두고 한 말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 . . . . . 그러나 次知力을 斷念한 그들은 다시는 이에 依賴할 理萬無리라. 知力을 斷念한 代身에 知力以外에 血路를 求할것은 自명한 理致니 여기서 그들이 知性の 「正確性」代身에 誠心の 「眞實性」 「誠實性」을 唯一 이 依據로 삼지 아니치 못하게 되는 것이니 從來의 主知主義를 버리고 一路 反

主知主義的 方向으로 突進하게되는 所以가 여기있는 것이다. 實로 이 點에— 다시 말하면 오늘의 인테리가 知性을 斷念하고 反主知主義적 方面으로 突進 한다는 點에 그들의 普遍的 特徵을 볼 수 있는 것이니, 그들의 自畫像에 不過한 오늘의 不安의 文學 不安의 哲學또한 一般으로 反主知主義적 傾向을 밝지 아니치 못하였든 本質的 理由가 實로 여기있는 것이다. 「푸루—스트」 「지—드」의 文學을 보라. 「빨트」 「부룬넬」의 神學을 보라. 「하이텍겔」 「야스펠스」의 哲學을 보라.

◇ . . . 어느 것인들 極端한 反主知主義的 思想이 아님이 잇으랴. 「푸루스트」 「지—드」의 文學이 知的 構成을 排斥하고 一種의 內省의 方法을 小說의 새로운 方式으로 삼으려 하는 것이라든지 「빨트」 「부룬넬」의 神學이 神에 對한 如何한 知的 論辯도 □拒하는 事實이라든지 또는 「하이텍겔」이 從來의 모든 構成主義的 哲學을 反對하고 人間存在의 根本性格을 「不安」에 서보고 人間存在의 存在性을 「關心」이라고 規定한 것이던지 어느 것을 莫論하고 一律로 知的인것에 對한 極度の 反感과 憎惡를 表明하지안는 者가 없음을 우리는 極히 밝히 알 수 었으리라. 그뿐인가 이를 不安의 哲學의 先驅者의 한사람인 「키에르케고—르」는 일즉이 大膽히도 「眞理는 主觀性(主體性)이다」라고 하여 모—든 知的 正確性을

◇ . . . . . 唾棄하고 眞理의 主體性을 主張하여 把握의 誠實性眞實性을 強調한것이라든지 또는 그가 「헤—겔」의 辨證法을 知的立場에서 人爲的으로 構成함에 不過한 單的 辨證法이라고 排斥하여 自身の 所謂 「質的 辨證法」을 代置시킨 것을보라! 더욱이 다음에 말할 「쉐스토프」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尼히리춤에 가깝도록 狂的으로 反主知主義的이니, 그의 天使가 몰래 갖다 주는 「第二眼」을 통해서 받는 靈感的 感應에 依하여서만 可能하다고하여 一切의 科學, 一切의 常識을 向하여 狂的罵倒를 퍼붓고 있는 것이라든지, 「矛盾律」의 無能을 高調하여 「아리스토텔레스」와 및 「칸트」까지도

◇ . . . . . 여지없이 罵倒하는 것이라든지 그뿐인가 나중에는 「모르기는 하지만 普通人間이란천치야!」 「2×2=4는 生이아니라 死의 始初란 말이야!」 하고 「地下室의 사나히」의 手記를 거듭 引用하면서 웨칠때 우리는 그가 果然 精神病者나 아닌가하고 疑心하리만치 그의 反主知主義에 놀라지 안힐 수 없으리라.

어쨌든 이런 모—든 點을 보아今日인테리의 마음을 깊이 사로잡고 있는 이들 不安의 諸思想은 一律로 反主知主義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나니, 이는 實로 不可避한 事實이다. 何故뇨하면 元來 이들 思想은 決코 다른 것이 아니

라, 오늘의 絶望的 인테리의 自畫像以外에 아모 것도 아니였기 때문이다. 切望 끝에 知性を 斷念하지 아니치 못한 사람의

◇ . . . 思想傾向 에 反主知主義的 傾向을 밝게 될 것은 自명한 理致가 아닌가! 우리는 흔히 所謂 思想 批評家로 自處하는 一部の 哲學者 사이에서 現代의 反主知主義를 說明할 때 단지 이것을 新칸트派的 主知主義에 對한 單純한 思想的 反動現象으로 밖에 說明안는 것을 종종 보는 것이나, 思想의 推移를 이같이 純全히 「觀念의 取引」으로밖에 理解하지 못하여서는 思想의 참된 理解를 얻었다고는 못하리라. 思想이란 元來社會的 諸機構의 觀念的 反映以外의 아무것도 아닌 以上, 그것의 完全한 理解는 이 反映關係에 對한 注視를 떠나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現代의 不安의 文學, 不安의 哲學이 가지는바 이 反主知主義的 傾向도 이러한 觀點을

◇ . . . 떠나서는 理解될 수 없는 것이니, 무릇 이것은 한갓 從來의 主知主義에 對한 單純한 觀念的 交代가 아니라 根源的으로는 現代의 知識人의 外的破産으로 必然的으로 起因된 內的破産이 나흔 知性的 觀念으로부터 生起된 不可避한 所産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